

# “분식회계 낙인 지우자”… 경영 투명성에 칼 빼든 삼바

&lt;삼성바이오로직스&gt;

## 경영투명성 강화방안 공개

내년 상반기 내부 통제시스템 운영 외부 전문기관, 검증부서 추가 신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의 낙인을 지우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강력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한다. 모든 업무 프로세스의 경영 투명성을 다시 점검하고, 내부 감사와 준법감시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11일 삼성바이오는 내년 1분기부터 시작되는 경영투명성 강화방안을 공개했다. 기존 감사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재점검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6년 코스피 시장



11일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인근 신호등에 초록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에 상장하면서 회계 전문가인 외부 교수 중심의 감사위원회 신설한 바 있다. 감사위원회는 업무 감사권과 영업보고 요구권, 업무 재산 조사권,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진

다. 현재 정석우 고려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가 감사위원회장을 맡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내년 1분기부터 기존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대비 미흡한 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 외부 감사기관과

는 별개로, 또 다른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

해 주기적으로 이 개선방안을 점검하고, 회사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부 회계관리 감독도 더욱 전문화된다. 삼성바이오는 내년 1분기 안에 감사위원회 중심으로 꾸려진 회계조직과 분리된 내부 회계 검증부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하는 동시에 내부 감사 결과를 한 차례 더 점검하기 위한 장치로 분석된다.

법무조직도 강화한다. 현재 CC&C센터(Contract, Compliance & Communication Center) 안에 소속된 법무 조직을 따로 떼어내, 김태한 사장의 직속 자문부서로 확대, 재편할 계획이다. 내부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역량을 높임과 동시에, 이번 ‘분식회계’ 사태와 같은 외부 변동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

로 풀이된다.

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거래위원회 기준도 강화한다. 내부거래위원회는 회사 임직원과 외부 주주들 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심의하는 조직으로, 감사위원인 윤병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의장을 맡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강력한 내부 통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전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내부통제체계를 2분기 내 운영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큰 그림이 그려진 상태이며, 세부 사항은 내년부터 차차 마련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업체 수 및 대출 추이>

구분	(단위 :社, 억원, %)				
	2015년 말	2016년 말	2017년 말	2018년 6월 말	2018년 9월 말
P2P대출업체수	27	125	183	209	205
누적 대출액	373	6,289	23,400	36,534	42,726

/금융감독원

## P2P대출 자금 돌려막기 막는다

### 금융위, 가이드라인 개정

앞으로는 모집한 투자금으로 다른 대출을 갚는 P2P(개인간)대출의 자금 돌려막기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사기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등 담보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했으며, 대출상환금도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으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P2P 누적대출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4조2726억원이다. 지난 2016년 말 6289억 원 대비 7배 가까이 급증했다.

덩치는 커졌지만 대출 실태는 그야말로 엉망이다. P2P 대출 10건 중 6건 이상은 PF과 부동산 담보대출로 쏠림현상이 심했고, 허위상품 등 사기·횡령도 기승을 부렸다. 감독당국이 사기·횡령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한 업체도 20곳에 달한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투자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부동산 PF 상품의 경우 부동산 물건의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을 독립된 외부전문가로부터 검토받고,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대출은 상품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해야 한다. 선공시·후 모집 구조로 투자자가 거액의 P2P대출 투자 전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한다.

P2P업체의 연체율은 총누적대출잔액이 아닌 총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도록 명확히 하고, 대출유형별로 연체율과 연체 건수를 모두 공시해야 한다.

P2P금융협회 회원사 60개사를 기준으로 지난 9월 말 연체율은 5.4%다. 2016년 말 1.24% 수준에서 급등한 상황이다.

그간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온 P2P대출의 자금 돌려막기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앞으로는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은 운용할 수 있으며, 만기연장 재대출이나 분할대출 등 고위험상품을 판매할 때는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 ‘거래재개’ 삼성바이오 주가 17.8% 폭등

39만4000원에 종료… 한때 42만원

“삼바, 장기적인 성장성에 주목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재개된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한 직원이 급상승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이후 20거래일 만에 거래가 재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등했다.

11일 주식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79%(5만9500원) 폭등한 39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요 증권사가 삼성바이오에 대해 ‘매수’ 투자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삼성바이오는 한때 25%나 급등한 42만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차익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전일 한국거래소(KRX) 기업심사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상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면서 상장폐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증권사들은 일제히 ‘매수’를 추천하는 보고서를 냈다.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높은 성장성과 더불어 바이오시밀러뿐 아니라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도 영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부각될 수 있어서다.

이태영 KB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 목표주가 52만원을 제시하며 “그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프랑스 생고뱅과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개발에 사용되는 1회성

플라스틱 부품 공급계약 체결하고,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위탁생산을 논의하는 등 CMO 사업 확대에 전념해 왔다”면서 “2016년 11월 상장 당시부터 이어져온 회계관련 불확실성을 걱정하고 장기적인 성장성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거래재개로 가장 우려했던 상장폐지의 불확실성이 제거됐으며, 매매 정지 기간이 길어질 경우 우려했던 향후 수주 차질 부분이 해소됐다”면서 “내년 하반기에 실적 개선 폭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6만원을 제시했다.

다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 심화와 소송 이슈는 남아있는 리스크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한국투자증권은 삼성바이오에 대해 매수의견을 유지하나 목표주가는 44만원으로 기준 목표보다 28% 하향했다.

진흥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과의 마찰이 영업과 수주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최근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 심화를 고려했다”면서 “2019년 3공장 가동률이 100%에 도달하는 시기를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늦추고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를 7조원에서 5조원으로 하향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를 분식회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 적정성을 증명하고자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 70년생-90년생 ‘회사 충성심’ 개념 달라

### >> 1면 ‘고용한파에도 사표…’서 계속

맥킨지코리아는 최근 ‘2018 기업문화 혁신 콘퍼런스’에서 “우리 기업문화는 여전히 ‘정바지를 입은 꼰대’에 머무르고 회의감만 커졌다”며 “기업문화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되는 만큼 종체적인 변화전략부터 먼저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제희 맥킨지 파트너는 “최근 바텀업(bottom-up) 혁신이 강조되며 소통, 자율 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변하자’는 주입식 캠페인 외에 구조, 프로세스의 변화가 병행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원인과 해법을 관통하는 체계적 전략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공적 조직변화를 위한 4대 원칙

으로 ▲체계적 문제진단 ▲명확한 개선 목표와 조직원 공감 ▲전방위적이고 동시다발적 변화 ▲작은 성공 만들기 등을 제언했다.

임홍택 브랜드매니저는 그의 저서 ‘90년생이 온다’에서 “과거 70년대생과 그 이전 세대에게 충성심이라는 것은 회사에 대한 것이었지만, 90년대생에게 충성심은 자신과 본인의 미래에 대한 것이다”며 “충성의 대상과 의미가 달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90년대생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 방안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충성도에 회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

강릉선 KTX사고 등에 “책임 통감”

당분간 정인수 부사장 체제 운영



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의 뜻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번 강릉선 KTX 탈선 사고에 대해 “그동안 공

기업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합리화와 민영화, 상하분리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그동안 방치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며 “철도 공공성을 확보해서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달 새 크고 작은 열차 사고 10건이

발생한 가운데 코레일이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19일엔 서울역에서 KTX가 선로 보수작업 중이던 굴착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나흘 뒤엔 23일 충북 오송역에서 전기 공급 중단으로 KTX 경부선 상행선과 하행선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치명타는 지난 8일 오전 발생한 KTX 강릉선 탈선사고다. 이 사고는 부상자 16명이 발생하고 기관차를 포함해 10량 모두 철로를 벗어난 조유의 대형 사고로, 오사장의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오사장은 취임 후 성공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수송 업무를 마치고 해고자 복직, 철도승무원 부채 해결 및 자회사 채용 등 노사유화정책을 펼쳤다.

/체신화 기자 csh9101@